

# 작품 전시부터 기부까지... 명인들의 '희망나누기'

▶ 전통문화전당, 내년 1월 3일까지 '희망나눔 전시회' 개최

## 모금한 수익금 전액 밥 굶는 아이 위해 기증

무형문화재 명인들이 자신들의 작품들을 팔아 모금한 수익금 전액을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 기증하는 전시회를 열어 훈훈한 온정을 더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이사장 박순중)은 내년 1월3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온브랜드관에서 전북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명인들로 구성된 '전라북도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와 함께 '희망 나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희망 나눔 전시회'는 명인들의 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의 시간 뿐 아니라 갤러리들이 작품 구입을 통해 주변의 불우이웃에 간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며졌다.

명인들은 손수 만든 작품 1점씩을 정가의 절반가격 수준으로 전당측에 기증하고, 전당은 작품 전시가 끝나는 마지막 날 수익금 전액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새벽 도시락 배달 사업인 전주시의 '엄마의 밥상' 측에 기증하게 된다.

전북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악기장(가야금) 고수환 명인은 이번 나눔 전시를 맞아 손수 여러 날 공들여 만든 250만 원 상당의 가야금을 무려 150만원이나 저렴한 100만원에 내놓았다.

또한 옷칠장 박강용 명인은 판매가격 80만원 상당의 옷칠 다도세트를 30만원에 기증했으며 가족회관을 운영 중인 비법밥



한해를 빛낸 전주시 문화예술인에게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주지회(회장 심재기)가 주관하는 '제27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 및 예술인의 밤' 행사가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전북여성실업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

명인 김년민 사장은 가족회관 5만 원 식사권 6장, 총 30만 원 어치를 절반 가격인 15만 원에 내놓았다.

전시회에 참여하는 무형문화재 명인들은 대금(최종순), 가야금(고수환), 전통창호(김재중), 합죽선(엄재수·이신임), 이강주(조정형), 옷칠함(박강용), 한지발(유배근), 단선(방화선), 거문고(최동식), 비법밥(김년민), 지우산(윤규상), 단청

(신우순), 침선(최은순) 등 13개 분야 14명이다.

협회 이사장인 고수환 명인은 "정희 무형문화재 명인들에게 전주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희망나눔 전시회를 갖게 됐다"며 "명인들의 작품도 감상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기부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는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정성택 국장은 "평소 보기 접하기 힘든 무형문화재 명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매를 통해 기부도 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전시"라며 "앞으로도 전주의 전통공예 활성화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와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 공연 & 전시 ◀◀

### '마치 목숨을 건 전투 벌이듯 3분이라는 일순의 즐거운 사투'

정해춘 작가의 크로키 '울동 그리고 그림자' 전

'한번 어긋나면 그만. 두 번의 기회는 없기에, 초음을 아껴 순간순간 정신과 감정을 몰입하는 것만이 묘책이다. 약속이라 할 것도 없이 미주친 눈빛 하나로 그림은 시작된다. 사각사각 종이를 스치는 콘테의 마찰음 뿐. 초기장의 시간이 흐른다. 가쁜 숨을 몰아쉬고 마치 목숨이러듯 건 전투를 벌이듯이 불과 5분 아니던 3분이라는 일순과의 즐거운 사투'



정해춘 작가는 크로키 작업에 대한 단상을 이같이 표현한다.

크로키는 일견 무심한 듯 속삭임과 그린 그림 같이 보이지만, 이는 굳어지지 않은 몇 개의 선만으로 비례를 맞춰 정확하게 그려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어찌 보면 간간한 작업을 요하는 그림이다.

이에 대해 정 작가는 "크로키는 고도의 집중력·순발력·통찰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그림에서 일체감과 생동감이 빛을 발한다"고 말했다.

교동아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울동 그리고 그림자'전에서 정 작가는 선의 감각을 조절함으로써 때로는 역동성을, 혹은 리듬감을 통해 단순히 보이는 크로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인체의 동작은 같은 그림이 하나도 없으며 움직임에 따라 수도 없이 많은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작품의 모티브로 삼는다"며 "누드 그림을 터무니 없이 하지 말고 인체의 아름다움과 완전한 곡선 자체로써 감상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춘 작가는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초대, 대한민국 중심작가 초대전 등에서 전시활동을 펴왔으며, 한국누드미술대상전, 전북미술대전, 벽골미술대전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미회, 노령회 전주누드크로키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15회째인 이번 개인전은 내년 1월 8일까지 교동아트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 극단 명태의 뮤지컬 '단야별곡', 연극대상 베스트작품상

### '수저 계급론'으로 사람

### 등급 매기는 현 사회 재조명

극단 명태(대표 박나래미)가 지난 26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연극대상에서 단야별곡으로 베스트작품상을 수상했다.

한국연극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연극대상은 매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펼쳐진 우수 연극을 대상으로 '젊은 연극인상',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베스트작품상' 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창작초연 뮤지컬인 '단야별곡(작가/김성희·연출/최경성)'은 국내 최고의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역사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기 위한 의미로 제작됐다.

한국연극협회는 "단야별곡은 우리지역의 쌍용실화와 벽골제 전해 내려오는 단야설화를 중심 소재로 제작되었다. 고전설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민중의 생각과 삶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며 "옛것을 거울로 오다 보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고전설화의 힘이



다"고 말했다. "이러 공연은 오늘날 수저 계급론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기는 현 사회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기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제혁 황토투레퍼토리컴퍼니 상임연출가가 자랑스러운 연극인상(공로상)을, 홍자연 전주시립극단 상임단원이 젊은 연극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 상임연출가는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전북지회 등에서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며 연극행정에 헌신했으며 창작소극장을 개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현재는 전주대학교

공연엔터테인먼트학과에서 후학들을 지도하며 인재 양성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주시립극단의 상임단원으로 약 20여 년 동안 배우 및 공연활동을 해온 홍자연 씨는 램프, 시선의 선인 등 약 8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극작가로써의 뛰어난 재능을 자랑하며 2016년 전북연극제 극단까지동의 '나시, 꽃피어'로 희곡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극단까지동에서는 전주지역의 뛰어난 여배우이자 촉망받는 희곡작가 홍자연을 젊은 연극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 진안 예술인의 밤 개최

'2016 진안 예술인의 밤'행사가 28일 이항로 군수, 이재명 문화원장 등 기관단체장과 예총 산하 문화예술단체 회원,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예총 진안지회(회장 이승철)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현욱님의 시낭송에 이어 개회사, 인사말, 축하, 사물놀이, 색스폰 연주, 가야금 병창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진안예술상을 수상하신 박현대(미술협회)님과 예총·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위한 예술공로상으로 송용득(국악협회)님의 시상식이 진행 됐으며, 2부에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협회별 어울림 행사가 이어졌다.

이항로 군수는 "올 한해 진안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한 모든 예술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새해에도 더욱 왕성한 예술창작 활동으로 군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생활예술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인간·사회의 틈새를 그림으로

### 익산예술의전당서 '꿈의 이면: the inside of dream'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은 30일까지 미술관 제1·2전시실에서 '꿈의 이면: the inside of dream'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동시대 현대미술의 경향과 흐름을 수용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승주·김예지·김여울·박찬국·장연수·장은정을 청년 작가들을 초대·지원한다.

이들은 물질화된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인간과 사회의 틈새·이면을 들여다본다. 그 안에서 작가들은 파편처럼 존재하는 모습·기이함·욕망의 문맥을 읽어내며 예술의 다양한 범주로 표현해 낸다. \*\*문의 063-859-3317. /정해은 기자



## 따라볼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9일>



### ▷쥐띠

48년생: 컨디션 잘 유지해야 하는 운.  
60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매사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주의하라.  
72년생: 인덕이 따르는 운이니 타인과 함께하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84년생: 뜻밖의 수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포기하지 마라.



### ▷우띠

52년생: 이미 자신이 알기 전에 정해져 있던 것.  
64년생: 쥐띠와 화합하여 진행하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76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다.  
88년생: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고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원숭이띠

56년생: 손아래 사람에게 도움 받을 일이 생기니 권위적인 언행은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68년생: 물다리로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할 때.  
80년생: 좋은 일하고 뺄 뺄는 격. 나서지 않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2년생: 건강이 좋지 않은 운이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 ▷소띠

49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아 실수를 범할 수 있다.  
61년생: 편법을 사용하면 주변에 알려지게 되니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라.  
7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다.  
85년생: 작은 일은 성취 가능하나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다.  
65년생: 감정에 치우치면 일을 그러치게 된다.  
77년생: 지나간 일들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89년생: 겉으로는 서로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상대를 믿지 마라.



### ▷말띠

57년생: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지켜라.  
69년생: 먼저 손해를 보면 후에 이익을 얻게 된다.  
81년생: 미뤄왔던 문서 정리나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다.  
93년생: 정신이 맑지 않은 운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 ▷호랑이띠

50년생: 하고자 하는일이 있다면 매사 일찍 움직여라.  
62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운전은 삼가고 기급적 위험도 삼가는 것이 좋겠다.  
74년생: 동기감이나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발생한다.  
86년생: 정신적으로도 편안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좋지 않다.



### ▷말띠

54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겠다.  
66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에 손을 내밀어라.  
78년생: 다른 사람에게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운이다.  
90년생: 미뤄왔던 공부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운.



### ▷개띠

46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으니 내실을 다지는것에 신경써라.  
58년생: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다.  
70년생: 모든일을 혼자서 감내해야 하니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8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지만 오해를 사지 마라.



### ▷토끼띠

51년생: 문서로 인한 글전지출은 줄으나 다른 투자나 투기는 삼가는 것이 좋은 운이다.  
63년생: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75년생: 글전적으로 이익이 따르는 운.  
87년생: 하고자 하는일에 구설수가 따른다.



### ▷양띠

55년생: 글전적으로 기운이 좋은 운이나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은 화를 부르는 주의하라.  
67년생: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생긴다.  
79년생: 글전적으로 손재주가 따르니 무리한 투자는 금물.  
91년생: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손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볼 것.



### ▷돼지띠

47년생: 가족들과의 불화가 생기는 때.  
59년생: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고 상황도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는 운이다.  
71년생: 여성이라면 발늦게 다니면 혼란일이 발생한다.  
83년생: 이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하라.